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18년도 제1호

© Ismael Martínez Sánchez / ACN

“사람들이 생각과 말과 행위로 폭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기도와 행동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하느님께 기도로 의탁하는 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의 장인**’이 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7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미사 강론 중)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바오로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오로는 아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권고를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봉사하는 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데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로마 12, 6-8 참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바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오로는 단지 개인들에게만 권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로마 12, 10-16 참조)

이것은 단지 좋은 계획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 땅에서 주님 평화를 위한 길을 닦고자 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마음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롭고 복된 2018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CN 수석대표
요하네스 헤르만
폰 쥐트비크
*Johannes Freiherr
Heereman*



평화의 장인: 나이지리아의 신학생

자비의 희년이었던 2016년,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이었던 2017년과 달리 2018년은 특별한 일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늘 한결같은 목표와 도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평화를 위한 소명’입니다. 평화는 사실 모든 희년, 기념일, 사목 계획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이에 교회는 해마다 한 해의 첫날을 세계 평화의 날로 기념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시간의 총만을, 즉 새로운 구세주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세주께서 이미 와 계신다면 왜 이 땅에 아직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은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수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선물로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주신 첫 선물 역시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필리 4,7)’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평화의 주인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단지 일시적인 휴전도 아니고 ‘공포의 균형’도 아니며 덧없는 환락도, 거짓으로 꾸민 휴식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모든 것을 아우르며 온전하고 궁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화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몸으로 원수를 이기셨고 이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평화(에페 2,14)’가 되셨습니다. 과우스티나 성녀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은 내 자비에 믿음으로 의탁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진실성은 단지 어려움을 없애는 것이나 모든 욕망을 충족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만족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평화로 가득차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안에서 하느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과 화해를 이룰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이로써만 세상에 평화가 깃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희년’을 지내야 하고, 이를 통해 모든 이들과 평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수도자였던 사로프의 성 세라핌은 “그대가 평화를 찾으려면 수많은 사람이 그대에게서 치유를 얻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평화는 동아시아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내면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학자 막스 튀르크아프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얻은 평안을 이웃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나누고 선물하는 평안이 곧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이 위협에 처한 채로 살고 있다면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2018년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찾고 선물하는 ‘조용하지 않은’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합시다.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늘 새롭게 하고자 하십니다. 교회는 시대의 먼지와 티끌로부터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쇄신은 바로 우리 자신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ACN 설립자 베렌프리트 판 슈트라텐 신부, 1913-2003)

사순 시기는 중요한 상징으로서 재를 받고 회개를 위한 부름을 받는 시기입니다. 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재는 죽음의 실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실재를 직면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죽음은 어두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일상을 더욱 선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환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시련의 시기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우리는 자유의 지로 행해 왔던 것을 멈추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필요한 것을 벌어야 했던 시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 너머에는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에는 더해지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했던 일을 두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가 죽음을 공포스러운 실재로 여기지만, 그로부터 빛이 나와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간은 사물을 변하게 합니다. 시간은 지금 당장 끝나기도 하고 반대로 영원토록 끝이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선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이를 만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행한 아주 작은 선행도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저질러 그 선행의 공적을 잃어버린다면 하더라도 회개하면 모두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해를 하고 사죄경을 들으면 죄는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선행의 공적은 그 순간 이미 돌아와 있습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는 이처럼 서로 합심하여 작용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작은 점과 같습니다. 이 점이 쭉 늘어서 선이 된다면 그것은 무한히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잊혀지지 않고 남을 것이며 영원한 행복 속에서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천 년 전에 하느님 곁으로 간 성인들과 오늘도 통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인들의 선행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마찬가

지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감히 성인들이나 순교자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선행은 그들의 선행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선한 일 하나가 완성되면 시간은 그것을 그대로 가두어 두지 않고 영원의 차원으로 넘겨줍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동적인 하느님의 자비입니까. 사순 시기는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삶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모두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선행으로 충만한 사순 시기를 보람 있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원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ACN 재단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Cardinal Mauro Piacenza



삼중으로 차별받는 그리스도인 여성들

스웨타(가명)는 가장 낮은 카스트에 속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몇 살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속한 달리트 카스트 사람들에 관해서는 증명서류도 거의 작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회로부터 멀찌감치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별입니다.

© Ismael Martinez Sanchez / ACN



여기에서 달리트 계층이 그리스도교인이 되면 그나마 국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던 것마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차별입니다.

스웨타의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남편과의 오랜 다툼과 가난으로 그녀는 무기력해지고 말았습니다. 스웨타는 그녀에게 그토록 중요한 신앙에 대한 시기나 여성에 대한 관행적 멸시 따위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확실한 것 하나는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차별입니다.

스웨타는 구타, 고통, 빠져나갈 길 없는 절망 등 많은 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남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스웨타는 “남편이 무

거운 둔기로 내 머리를 때렸을 때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라고 증언하면서도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저는 곧 성당에 다시 갈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남편과 다투게 되는 원인입니다.

스웨타 부부는 달리트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달리트는 불가촉천민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층 사람들은 사회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직업을 얻을 수 없으며 미래도 없습니다. 언제나 이런 식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차라리 사람보다 동물처럼 여겨지는 건 예상일입니다. 스웨타의 세 딸은 의심 어린 눈초리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잘 웃지 못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아이들에게는 짐입니다. 스웨

타와 그녀의 가족에게 이는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13억 인도 인구 중 3분의 2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에 속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달리트 여성 아사(가명)

© Ismael Martinez Sanchez / ACN



스웨타와 그녀의 세 딸들

파키스탄은 그리스도인에게 위험한 땅입니다. 종교 극단주의자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자들이 만든 법률 때문에 신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의 젊은이들은 사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호르대교구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학교의 신학생들은 오래전부터 사제가 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시프 존 학장 신부는 이것이 “죽음과 어둠을 이기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학교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학생 96명과 교직원들을 시내에서 20km 떨어진 곳까지 운송해 주며 사목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가 큰 사고를 당해 수리가 시급합니다. 찾길이 자갈밭이라는 것쯤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도로 사정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니 차량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ACN은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약 1486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신학교에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세계보건의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는 태평양권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런 사고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길에서 일어납니다. 파푸아뉴기니의 많은 사람이 버스보다 값이 싼 트럭이나 합승 차량의 뒷자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반즈의 착한 목자 신학교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망 없는 상황에 성소자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 신학교에는 현재 신학생 35명이 재학 중이며 해마다 15명이 새로 입학합니다. 그런데 도로는 이미 자동차로 가득 차 위험하고, 신학교 소유의 낡은 합승 차량은 이제 곧 수명이 다할 듯해 ACN에 안전한 소형 버스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들도 탈 수 있을 것이며 사목 활동을 위해 그룹을 지어 먼 곳으로 떠나는 학생을 운송하는 데도 쓰일 것입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자동차 가격이 비싼 곳입니다. ACN은 이곳에 약 2934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원사업

문송수단 지원

지원대상

신학교 2곳

지원금액

4420만 원



사람들이 트럭 위에 위험하게 탑승한 모습

예전에 어느 이름 모를 여인이 스웨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스웨타는 “저희 아버지는 남자 형제들한테만 학교 가는 데

필요한 공책을 사 주었습니다. 저는 일하러 가야 했지요. 글 읽는 것을 저는 나중에 가서야 배웠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왕에 대한 복음에 그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그 왕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는 이야기에 스웨타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달리트 카스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회심과 변화, 그리고 치유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스웨타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과 싸우고 나면 저는 다시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를 성당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남편은 성당에서 또 미사 중에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좋

게 대해 주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부는 ‘작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마련한 가톨릭 혼인 세미나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성경 공부 이외에 기도를 통한 만남 등 다양한 사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도인은 85,000명에 이릅니다. 이곳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달리트 카스트 역시 늘 환영합니다. 그들은 비로소 여기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자신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ACN은 이 공동체의 활동을 비롯해 인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목 활동을 지원합니다. 2017년 한 해에만 가톨릭의 미래를 위해 인도 교회에 약 6809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2018년에도 이 활동에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미래의 목자들의 목자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 18,19-20)



교황이자 교회 학자였던 성 그레고리오는 모든 성인 대축일 강론 중에 성인들의 커다란 공동체에는 기쁨, 명랑함, 편안함, 형제애 등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차분함, 영혼의 강인함, 창조력에서 나오는 선물입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신학교 학장과 지도 신부들은 로마의 자모이신 마리아 성당에서 4주간 함께 지내며 이를 실감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강론, 공동체 미사, 기도, 묵주기도, 결혼과 가족 사목 및 기타 주제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오로 6세 교황이 편지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느님의 벗들을, 즉 ‘부름받은 성인’의 공동체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해에는 24개국에서 89명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에콰도르, 베트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매우 가난한 나라 출신이었습니다. 이곳 교회에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벗을 만나는 데 필요한 물자도 장소도 없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절반에 가까울 만큼 많은 이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왔는데, 돈이 부족해서 로마까지 오는 것은 물론 로마에서 지내는 것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ACN은 이들의 회합을 위해 약 1억 891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해마다 로마에서 전 세계의 형제들을 만나는 이 행사는 신학교 학장과 교육자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며 미래에 대해 용기를 갖게 해 주는 자리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에티엔 란드리야마난초아 신부는 이곳에서의 경험과 사제 형제들과 함께 들은 강론을 교구로 돌아가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루트비히 타쿠알리 우투쿠 신부는 자기 자신이 쇠신되고 풍요로워진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투쿠 신부에게 특별히 감명을 준 것은 교육 과정 중 경험한 깊은 통찰력이었습니다. 특히 인간의 성숙과 영혼에 관한 강론에서 이를 더욱 자세히 느꼈다고 합니다. 우투쿠 신부는 이곳에서 배운 것을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탄자니아 출신 이시도르 마쿠투 신부는 미래의 사제를 위한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해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뿌린 씨앗은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와가 교구의 신 버런스 신부는 새로운 빛 속에서 자신의 성소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미래 목자들의 목자가 되는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새로운 감동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의 “그러한 지시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바른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풍부한 은총

세상에서 아프리카만큼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곳은 없습니다. 가톨릭 학교나 신학생이 아프리카처럼 많은 곳도 없으며, 사제 성소자도 아프리카에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만큼 교회가 가난한 곳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주교들과 신학교 학장들은 성소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반면, 이들이 정말 성소가 있는지 혹은 단지 일자리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지원한 것인지 늘 검증합니다. 하지만 이 신학교 가운데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으며, 어떤 교구의 신학교는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국호의 뜻이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인 서아프리카 내륙국 부르키나파소의 도리 교구에는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삶을 봉헌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북부의 말리 접경지대인 이곳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속하며 이슬람교를 내세운 테러범이 이따금 국경을 넘어옵니다. 다미앵, 암브로시우스, 다니엘과 42명의 신학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느님께 봉사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방학 때면 자신이 사는 사헬 지역(울긴이 주: 사하라 사막 이남의 척박한 건조지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고향 성당에서 공부하고 생활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하느님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ACN은 이 신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약 22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기 대교구장 디외도네 은자팔랭가 추기경은 신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에는 신학생 전원이 학기말 시험에 합격했으며 그 가운데 세 명은 우수한 성적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내전으로 말미암은 혼란 속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백성에게 화해를 가져다주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고자 합니다. **ACN은 은자팔랭가 추기경과 방기대교구 신학생 53명에게 약 309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탄자니아에는 사제 성소 지원자 46명이 있으며 나이지리아, 수단, 케냐, 앙골라와 콩고민주공화국에도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기꺼이 봉헌하고자 하는 수백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ACN은 이 성소 은총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동참하고자 합니다.**



신학교 학장들의 만남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에서 실천하는 "기도하고 일하라" 정원에서 일하는 부르키나파소의 신학생



지원사업

신학생
양성지원

지원대상

아프리카
신학교

지원금액

5325만 원
이상



사랑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

아벨라의 성녀 테레사는 ‘나이들어 가는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저를 가능한 한 사랑 받을 가치가 있도록 지켜 주소서. 저는 슬픈 성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들어 가는 사람과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불평불만만 가득한 사람은 악마의 모습과도 같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바르퀴시메토의 맨발의 가르멜회 수녀들은 아직 모두가 성인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나이 들어 불평불만만 가득한 사람은 아니며 언제나 사랑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녀 테레사의 딸들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르퀴시메토에 사는 수녀 11명은 비록 비옥하지만, 내전이나 다툼없는 상황과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의약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명의 수녀에게는 의약품이 절실합니다. 이곳에서는 생필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물도 부족합니다. 수도물 고사하고 수도원 인근의 우물마저 말랐습니다. 더군다나 미신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수녀원 주변에서 활동하며 사람의 장기와 뼈를 훔치고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 때문에 수녀들은 선종한 수녀원 설립자와 다른 수녀들의 유해가 손상되지 않도록 시립 묘지에서 미리 이장해 와서 안전한 곳에 안치해야 했습니다.

37세의 이사벨 수녀는 “우리는 기도 덕분에 이미 현세부터 사랑의 나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수녀 열한 명 중 다섯 명이 이사벨 수녀보다 어렵습니다. 생존을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이 수녀들은 소임을 수행하기도 어렵고 기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기도 어렵습니다.

트라피스트회의 수녀 32명도 바르퀴시메토에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릴리안 수녀는 뇌졸중을 두 번 겪었고 베르나르다 수녀는 근육위축증과 고혈압으로 투병 중입니다. 파울라 수녀는 ACN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과 희망을 안고 기도하며 일합니다.”라고 썼습니다. 바르퀴시메토 대교구장 안토니오 로페스 카스티요 대주교는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교구에는 지금 이 수녀님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녀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CN은 바르퀴시메토의 맨발의 가르멜 수녀회와 트라피스트 수녀회에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약 1065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쁘고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맨발의 가르멜회 수녀들

베네수엘라

마다가스카르



지원사업1

수도자 생계 지원

지원금액

1065만 원

지원사업2

건설 지원

지원금액

2억 4760만 원



글라라회 수녀들의 꿈

교회 학자인 리구오리의 성 알폰소는 자신의 저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책에서 오늘날 현대인에게 무겁게 느껴질 만한 글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상실을 겪을 것입니다.”



우선 기도하고 그 다음 밭일을 하면서 올바른 균형을 맞춥니다



라우라, 키아라, 글로리아, 켈레스테 수녀는 시칠리아에서 왔으며 아녜스 수녀와 프란세스카 수녀는 마다가스카르 출신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기도가 필요한가요?”라는 의문문입니다. 성 글라라 관상 수녀회 수녀들은 삶을 통해서 이 질문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노동을 기도로 삼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기도 없는 사회적 활동은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다섯 곳의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는 글라라회 수녀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장 최근 설립된 공동체에서 6명의 수녀들과 함께 활동하는 라우나 수녀는 “우리는 근사한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 꿈은 바로 우리의 삶을 바침으로써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마다가스카르 북부 암반자 교구를 밝혀 줄 이 공동체의 이름은 ‘킨타나 마나자바’로 ‘빛 중의 빛’ 공동체라는 뜻입니

다. 이 빛은 이곳 사람들이 겪는 어두운 생활 환경에 빛을 가져다줄 것이며,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에게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가족 간 유대를 찾기 어렵습니다. 학교가 많지 않아 문맹률도 높습니다. 지식이 부족해 영적인 삶을 추구할 형편도 되지 않고, 그 틈을 타 미신적 행위가 만연합니다. 가난, 실업, 매춘, 약물 복용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더 가혹해지고 있으며 전기와 흐르는 물은 사치품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 자동차조차 구경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수녀들은 이런 어둠을 밝히기 위해 믿음의 빛을 가져다주는 일, 즉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수녀회 설립자의 큰 관심사는 일과 기도의 균형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었고, 그중에서도 우위에 두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수녀원을 이곳에 세울 때 한 공동체에서 라살레트의

성모상을 선물했던 것을 이들은 하늘의 표징으로 여깁니다. 수녀들은 성모 성월인 5월과 묵주기도 성월인 10월이 되면 집집마다 돌면서 사람들에게 묵주기도를 함께하도록 독려합니다. 라살레트의 성모가 세상에 발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독려한 것처럼 말입니다.

수녀 6명, 청원자 4명과 지원자 여럿이 현재 작은 집에서 살면서 기도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스스로 충당하고 있지만 집을 넓히고 성당을 짓는 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새로운 성당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특히 여성 신자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ACN은 필요한 비용 가운데 일부인 2억 476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글라라회 수녀들의 사심 없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그리스도인이 홈스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시리아 홈스에서 활동하는 수녀들은 “자비하신 성모님의 딸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합당합니다.

홈에서는 더 이상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이미 폐허가 되었습니다. 시리아 가톨릭 교회의 수녀원도 파괴되었습니다. 이곳 수녀들은 홈스 외곽의 자이달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이곳에 꽤 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역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녀들은 이곳의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교리 교육도 하고 병원에서 일하며 가족을 잃은 노인을 방문하고 여러 가정을 돌봅니다. 자이달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두려움을 겪지 않는 자비의 마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수녀들에게는 과연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수녀들은 어디에 살고 어디서 휴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3명의 수녀는 당장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고 ACN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집은 수녀들의 사목 활동은 물론 생활 전반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수녀들의 자비로운 모습은 응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ACN은 약 2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지역사업

긴급(난민)
지원

시리아

수녀들의 집
2600만 원

이라크

성탄 선물
꾸러미



모든 이를 돕는 수녀들: 어린이를 돌보는 미리암 수녀

이라크 니네베 평원의 아이들에게 지난 성탄 대축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3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 성탄을 축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지난 3년 동안 난민이 되어 이라크 곳곳을 정처 없이 떠돌거나 난민 캠프에 머물면서 집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해 시작된 니네베 평원 재건 사업으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찾은 집에서 아이들은 ACN 후원자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탄 선물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선물 전달식을 책임진 마리아 딸 수녀회의 니암 수녀는 “이 선물은 하느님 사랑의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성탄절에 전해진 이 사랑의 표징은 니네베 평원의 그리스도인 아이들에게 미래를 살아나갈 힘을 줄 것입니다. 니암 수녀가 “아이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하느님의 마음에 들기를

저는 5년 전쯤에 ACN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의 활동에 감동했습니다. 그 때부터 ACN의 일에 대해 더 잘 알고 자 노력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ACN의 활동이 진실함을 간직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고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다

제 아이들에게 <사랑의 메아리>를 읽어 주었더니 그동안 저축해 둔 것을 후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리아의 영유아에게 기저귀와 우유를 주고 싶다는군요. 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종신서원을 앞두고

카르투스교회 조셉마리 수사의 후원금을 동봉해 보냅니다. 조셉마리 수사가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몇 주 뒤 그는 종신서원을 할 것입니다. ACN의 모든 가족 여러분께 조셉마리 수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셉마리 수사가 여러분께 보내는 뜻을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전 세계에서 박해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해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활동하시는 모습을 오래 전부터 지켜보았습니다. 슬로바키아인들을 도와주실 때부터 ACN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은 액수나마 정기적으로 기부함으로써 여러분의 선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경제 사정이 나아진다면 그때 더 많이 기부하겠습니다.

아픔에 공감합니다

ACN을 후원하는 친구가 저에게 여러분의 활동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도 미약하나마 기부금을 보내드립니다. 될 수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시리아에 살면서 수녀원에서 자원봉사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전쟁 희생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서 축복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희망

<사랑의 메아리>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떠한 방해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밝은 미래를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해 줍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또 축복하시어 주님을 위해 이 위대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ACN의 활동에, 특히 서아시아 지역에서 펼치는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읽을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곳에 제 후원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후원자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보내시는 곳:

1) 우편

04111 서울 마포구 백범로 67, 8층

2)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3) 휴대폰 문자

010-7475-6440

4)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추가



안내

절두산 순교성지 ACN 전시장 개막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박해와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기억하고 연대하기 위해 한때 세차게 몰아쳤던 박해의 바람을 간직한 절두산 순교성지에 세계교회의 박해상황을 나누는 상설전시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례자 식당에서 열리는 이 전시를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고통받는 형제자매와 하나 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박해받고 잊혀진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원종현 주임 신부님과 성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 02-796-6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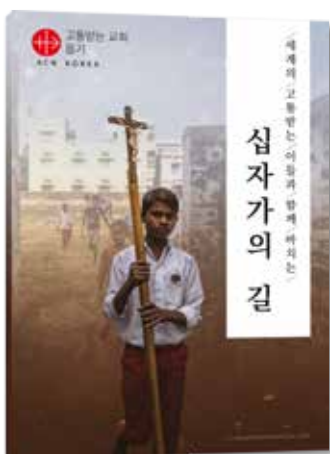
시간 2018년 3월 10일 (토) 오전 11시 첫 개장

장소 서울 절두산순교성지 한국순교성인시성기념교육관



신청

세계의 고통받는 교회와 함께 바치는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지금도 세상에 만연한 전쟁과 억압, 박해 등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가 걸어야만 했던 고통의 길을 묵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당에서, 소모임에서, 또 주변 이들과 다 같이 세계의 고통받는 교회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ACN KOREA 발행 | 148x210mm | 34쪽 | 무료 배포(재고 소진 시까지)

신청하기

인터넷

<https://goo.gl/cfvuLT>

문자 010-7475-6440

(작성 예: 성함, 주소, 신청 부수)



다 읽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